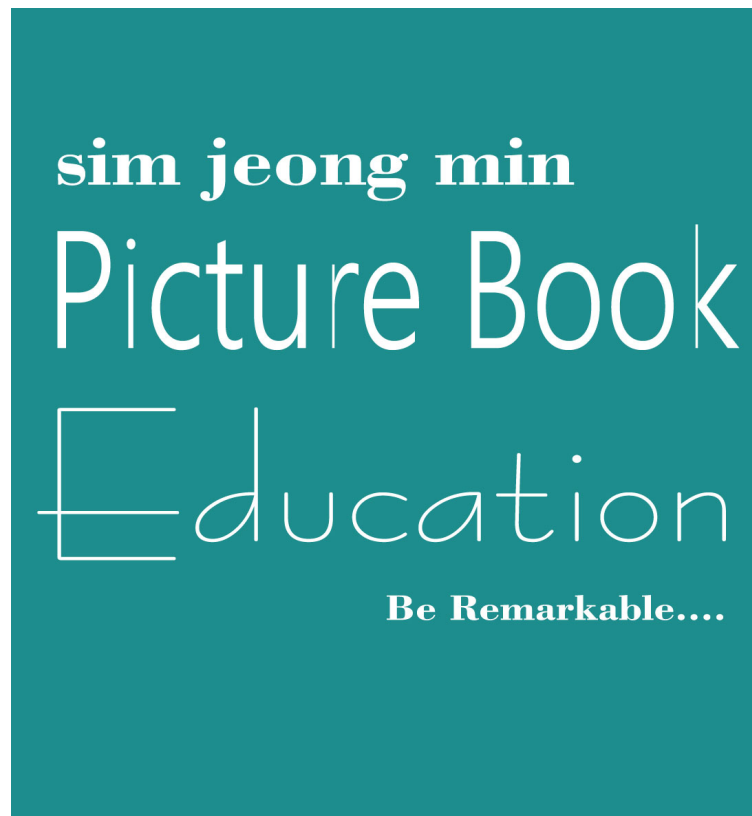


원장이라면,  
잠깐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 아이의  
발달특성을 인지하라.  
그리고 엄마와 소통하라!



자료 출처: [하늘을 나는 그림책] 교육 개발 출판부 20140565

심정민 그림책 교육 연구소

원장님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하지 않지만 수업을 하는 교사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발달특성이나 문제 행동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그 아이와 많은 소통을 하고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장은 본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의 특성을 충분하게 인지하여야한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① 수업하는 교사들과 충분하게 상호작용한다. 즉 이번 주 오늘 수업이 어떤 책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 수업안을 보고 충분하게 알고 있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들과 단 20분이라도 아이들의 수업 참여가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아이들의 반응을 듣다보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흐름과 수업의 준비 등도 함께 알 수 있다.

아이들의 행동, 언어적 반응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원장님은 기억해둔다. 엄마를 만나면 좋은 행동·언어적 반응은 한 두 개씩 잠깐씩 이야기 해준다. 그럼 엄마들은 원장님이 교사와 소통하고 있거나 아이를 관심있게 관찰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들이 쌓이면 엄마는 신뢰를 갖게 된다.

② 아이들을 보면서 안녕~이라는 웃음 담긴 인사도 기본이지만, 아이들은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가 수업을 기다리거나 수업이 끝난 후 잠깐씩 단 3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본다.

아이의 발달 특성을 인지하는 것은 상호작용만으로도 충분하다.

원장님도 그림책을 읽는다. 그림책의 스토리를 머릿속에 많이 담아둔다. 교사들보다 더 많은 그림책을 알고 있어야한다.

아이가 관찰력이 있는지, 탐구능력이 있는지, 분석능력, 비교 예측능력, 문제 해결력, 상황판단력이 있는지,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다양하게 특별한 방법을 찾아 논리있게 말하는지, 상상력은 있는지, 독창성은 있는지..... 등등 융합 교육의 모든 교육요소에 대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원장이 알아야한다.

이것을 쉽게 알아가기 위해 그림책을 많이 많이 읽은 후 그림책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아이에게 질문을 하나씩 건네보는 것이다. 원장은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 또한 아이들의 발달 특성 인지가 부족하고 주관적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원장이 이론적 근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들은 주관적으로 그냥 하는 말인지, 원장이 교육적으로 근거를 두고 자기 아이를 말하는지는 금방 알아차린다. 엄마인 본인이 교육적인 근거를 알고 있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엄마는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원장이 자기의 생각만으로 자기 자식 키우는 것처럼 바라보는 말들인지 엄마인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로 우리아이를 바라보고 말해

준 것인지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장은 이런 부분에서 항상 긴장을 하게 되어있다. 엄마들의 속성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원장은 본인에게 관련 지식이 부족함을 항상 두려워한다. 엄마들과 이야기 나누 것이 그리 긴장감이 들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이다. 완전한 배테랑으로 어떤 교육적 지식도 눈감고도 어느 누구에게 든 대입시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아님 그 반대로 얼마나 많은 배움의 지식들이 있는지 모른 채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만 대화를 시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기관은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업을 하고 파악된 사실들을 발전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해 수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원장이다. 원장이 먼저 아이들의 발달특성을 충분히 알아야하고 그것을 교사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하며, 그것이 교사들의 수업 시 상호작용에 반영이 되어 무조건 아이들에게 발전이 있어야한다.

이번에는 원장이 아이들을 만나면 잠깐잠깐 어떤 대화를 나눠야하는지 상호작용의 방법을 알려주려한다. 즉 위에 말한 관찰력이 있는지, 문제해결력이 있는지.... 등등의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실제 상호작용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거나 아이들끼리 잠시 있을 때 해보세요..

-다음의 실예는 실제 말하는 방법을 적어둔 것이며, 이론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인 기준은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나중에 연구소에서 출판되는 책으로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1. [관찰과 집중력 유도]

굴이 제철입니다. 아이들 오면 굴 하나씩 건네면서...

우리 지수 굴 껍질 벗기면 그 안에 몇 개의 알맹이가 들어있는지 세어본적 있어? 이거 먹으면서 한번 세워보고 나랑 엄마한테 가르쳐주라

## 2. [관찰력이 있는가]

관찰력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집중하여 본다거나 보여진 것을 즉흥적으로 빠르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아이가 사물이나 상황을 표면적으로 보면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해야한다. (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대충 이렇것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다. 관찰력은 본것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잘 찾아 말하는 것이다. 관찰활동을 오래하면 집중력은 생긴다. 관찰 능력을 키우기 가장 좋은 활동이 바로 그림

을 읽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위 산만 집중력 없는 아이들의 경우 관찰력을 키워주라 말하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정에서 그림책을 볼 때 그림읽기로 내용을 인지하며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권한다.

: 이 책 원장님이 좋아하는 책이거든, 혹시 좋아하는 책 있어? (없다면 좋아하는 책 한권 정도는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해. 라고 말해주세요) 이 책에 이 장면보면 모두 파란사람으로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한번 찾아봐.

(이때 찾는 자세-움직임이 없어야 함, 눈동자를 빠르게 움직이며 꼼꼼하게 살피는 자세 등/ , 얼마 만에 찾는지 시간, 찾은 후 반응을 보는 것이다.-그 반응에 따라 아이의 관찰력 정도는 알 수 있다. 그 반응을 엄마에게 이야기 해주면서 '관찰력이 참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 3. [탐구능력 발휘]

사물과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호기심 유발과 궁금증을 스스로 발언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극 시켜주면 아이의 탐구력은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우리 지수는 고양이 나온 그림책 아는 것 있어? 원장님은 고양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책 무척 좋아해. 근데.... 고양이는 왜 밤에만 돌아다니는 걸까? 고양이가 눈이 엄청 좋다더라 구 균형감도 너무 좋아서 절대 좁은 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는걸... 한번 오늘 엄마아빠한테 고양이 물어봐. 선생님에게도 물어보던지.. 아님 고양이가 나온 책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아이들은 답을 가르쳐주는 식의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자극을 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나한테도 말해줘~라고 말해보세요.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아는 척 하고 싶어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자신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고자하는 욕구는 성인보다 훨씬 강합니다. 바로 그부분을 자극하고 원장님의 상호작용이 항상 아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엄마들에게 알게하세요.

### 4. [분석능력, 비교능력]

비교는 하나의 상황과 사물을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이후에 제시되는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다른 것 하나를 정해서 (서로 비슷하거나 너무 다르거나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이나...) 비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연령 상관없이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사고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합니다. 모든 기회는 질문, 상호작용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를 할 수 있는 사고를 자극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무척 재미있어합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하지 않은 상호작용을 제시하는 원장님과의 대화가 항상 의미있고 자신에게 늘 생각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10세 이전부터 사고능력은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야합니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고가 훈련이 되면 아이들의 계획과 실천은 남과 특별하게 다릅니다. 그냥 내가 흥미 있어서 자유롭게 발현하기 보다는 의미 부여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리된 듯한 자유 발현이 무척 잘 드러납니다.

:지수야, 이번 주에 율리와 휴 그림책 하지? 그 책 너무 재미있지 않니? 난 이 책도 너무 좋아해. 근데 이 이야기에서 율리와 휴의 서로 같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나는 두 개정도 찾았어. 율리와 휴 둘은 키도 무게도 달라... 그치? 도대체 같은 건 무엇일까?

아이들과 수시로 상호작용 나눠주세요.

아이가 잠시 화장실을 가다 만났을 때 수업을 마치고 엄마를 기다릴 때

잠시 쉬는 시간일 때 등.....

우리 원에 다니는 아이의 위의 능력들이 어떤지는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기본적인 융합형 사고 교육에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쉽게 상호작용 사례로 이야기해주시면 엄마들과 상담은 정말 실질적이고 작은 것이지만 교육적인 마인드도 더욱 빛나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들의 융합적인 사고능력을 알아보며 아이들의 발달특성을 인지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의 정서와 수업의 발전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을 보며 어떤 상호작용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눌지 항상 연구하시는 원장님들이 되세요.

3. 기본 스토리를 활용한 게임 만들기
4. 창의적 이야기 짓기 권장을 위한 확장 게임 만들기
5. 스토리텔링을 위한 게임 만들기

-스토리텔링 교육

- 키워드를 활용한 상상적 스토리텔링
- 규칙적인 문장 구조를 활용한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 키워드 기억하여 짧은 이야기 만들기
- 창의적 등장물 개입을 통한 스토리텔링
- 6하 원칙에 따른 자율적 스토리텔링
- 지식적 정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6. 스토리텔링 수학 개념 형성을 위한 수학적 스토리텔링 지도하기
- 7.

